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조연정*

1. 부인된 애도
2.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3. 되돌아온 죽음과 애도 불가능성 - 권여선의 『레가토』
 - 3.1. 초자아로서의 ‘광주’
 - 3.2. 훼손된 여성성과 되돌아온 죽음
4. 죽지 못한 치욕과 증언 불가능성 - 한강의 『소년이 온다』
 - 4.1. 죽음의 불가해성과 ‘사건’으로서의 ‘광주’
 - 4.2. 증언불가능성과 재현가능성
5.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최근 몇 년 사이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분석될 여지가 크다. 이 글은 광주항쟁을 서사의 중요한 동력으로 호출하는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분석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으로서의 ‘광주항쟁’을 현재화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권여선의 『레가토』에서 ‘광주’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 출신의 운동권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권여선 특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유의 직설 어법으로 운동권 세대의 허위와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소설이 '초자아로서의 광주'를 소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광주의 현장으로부터 30여년 만에 살아 돌아온 정연의 훼손된 육체는 광주를 역사적 사건으로 화석화하려는 현재적 기억의 방식이 지닌 폭력성을 문제 삼는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비극을 재현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소설이다. 흔히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은 죽은 자의 훼손된 육체를 묘사하거나 살아남은 자의 고통 받는 영혼을 그림으로써 광주의 비극을 재현하곤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이와는 반대로 죽은 자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살아남은 자의 육체적 수치를 '증언 불가능'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광주의 참상을 보다 정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소년이 온다』는 광주를 다루는 기존의 소설에서 온전한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어린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증언을 들려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 광주를 익명의 집단적 비극으로 의미화·역사화하는 일에 저항하며 고통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것이 『소년이 온다』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서사들이 실패한 지점들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의 의미와 가능성을 재고해볼 수 있다.

(주제어: 광주, 애도, 민주주의, 운동권 세대, '산죽음', 수치, 증언 불가능성)

1. 부인된 애도

5·18 광주를 다룬 소설로 임철우의 『봄날1~5』(문학과지성사, 1997~8)

은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간의 많은 연구가 확인했고 작가 스스로 밝혔듯, 광주에서의 열흘간 항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봄날』은 “사실에 충실한 하나의 기록물”(작가의 말)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광주항쟁에 관한 사회학 분야의 대표적 역작으로 평가되어 온 『오월의 사회과학』(폴빛, 1999)의 저자 최정운도 자신의 저서가 많은 부분 『봄날』에 빚지고 있음을 최근의 한 대답에서 밝힌 바 있다.¹⁾ 계엄군이 일시 퇴각하고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한 2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확실한 증언들이 남아 있지만, 1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공수부대의 비인간적 학살과 그에 맞서는 시민군의 초인적 저항이 펼쳐진 초반 3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복원이 쉽지 않았는데, 그 3일간의 사정을 『봄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최정운은 말한다. 임철우 역시 『봄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초반 3일에 집중했음을 강조한다.

광란의 카니발과도 같았던 공수부대의 잔인한 폭력과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절대 공동체”(최정운)가 정말로 실재했음을 증언하기 위해, 나아가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감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 임철우는 『봄날』을 집필하는 데에 10여년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서 <들불야학>과 <광대>에도 관여하였으며 광주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는 소설가가 된 이후 “처음부터 그냥 오월을 세상에 전하겠다”²⁾라는 목표뿐이었다고 고백한다. 한국 현대사의 아픈 비극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는 물론, 소설가로서의 그에게도 “오월이 어떤 초자아 같은 것”³⁾으로 작용했다고

1) 최정운·임철우,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 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사회』, 2014 여름호.

2) 위의 글, 343쪽.

3) 위의 글, 345쪽.

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광주항쟁의 최초 기록물인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폴빛, 1985)⁴⁾ 이후 12년 만에, 그것을 뛰어넘는 더 정확하고 치밀한 기록물로서 『봄날』을 얻게 된 셈이다.

1980년 당시에는 ‘광주사태’라는 명명을 통해 폭도들의 반국가적 난동행위로 왜곡·이해되었으며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이름이 수정된 광주항쟁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광주에서의 비극은 정권 장악을 시도한 신군부가 12·12로부터 5·17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기획한 “다단계 쿠데타(multi-stage coup)”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⁵⁾ 시각이 지배적이다.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로서 정치권과 민중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 ‘진압기계’로 훈련된 공수부대에게서 전시적 폭력을 이끌어낸 것이 5·18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의 이 같은 비극적 사태에 대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왔으며, ‘광주사태’라는 모호한 명명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상징적 명명으로 변모하면서 광주항쟁은 공식 역사 속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광주항쟁을 분석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제출되었고⁶⁾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형용 불가능한 비극은 얼마간 재현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 의미화가 완료된 과거의 사건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18 기념일’

4) 오랫동안 황석영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던 이 책은 광주항쟁에 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황석영이 운문을 하고 대표 집필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다. 발간 즉시 집필자가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작가인 황석영이 저자로 선택되었다고 한다. 이 책이 발간된 직후 실제로 황석영은 수사기관에 연행되고 풀빛 출판사의 나병식 대표는 구속되었다.

5) 손호철, 『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조명』, 『진보평론』, 1995.

6) 최정운은 광주항쟁을 둘러싼 담론을 “폭도론”, “불순 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 “과잉 진압론”, “민주화론”, “민중론”, “혁명론”으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한다. 최정운, 『(신판)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80~108쪽 참조.

의 제정과 더불어 광주항쟁은 그저 기념되어야 할 사건으로 점점 잊히고 있는 것이다. 임철우의 『봄날』 이후 한 동안 광주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눈에 떨 만한 작품이 출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자못 의미심장하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대표 필자인 황석영이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오래된 정원1~2』(창비, 2000)에서도 광주가 적극적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광주항쟁의 현장에 부재했던 지식인 운동가의 부채감을 바탕으로 '광주 이후'를 다루는 이 소설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증언하거나 항쟁의 의미를 새롭게 현재화하는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읽힌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참극이라는 점에서 광주항쟁의 사후처리 과정이 뒤늦게나마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보상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들을 우선 시한 것은 마땅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과 '보상'이 이미 일어난 사태를 되돌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책임과 희생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처벌과 보상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훼손된 정신과 육체가 완벽히 복원되지 않는 이상, 잊고 싶은 기억들이 영구 삭제되지 않는 이상, 처벌과 보상은 애초에 불충분하거나 어찌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벌어진 비극에 관해서라면 적당한 처벌과 보상이 그 사태를 처리하는 최후 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오히려 처벌과 보상의 불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미 벌어진 사태를 명명 불가능한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일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재차 희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상징화, 의식화(儀式化)를 거절하고 그것을 "이름을 거부하는 현전"이자⁷⁾ "후사건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전히 살아 있는 "선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반복되는 주장들은⁸⁾

7) 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2호, 2006.

충분히 음미될 필요가 있다.

광주를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억’하면서 결국 현재적 가능성을 ‘망각’해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대한 “부인된 애도(disavowed mourning)”⁹⁾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정치적 가능성을 새롭게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광주를 소환하는 소설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도 이처럼 광주에 대한 애도를 멈추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애도의 지속이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으로 응집되고 발현될 수 있는가를 타진해보는 일이다. 폭력과 상실의 사태 이후 애도(mourning)를 부인하고 우울(melancholy)의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서로의 물리적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버틀러식의 애도의 정치학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 광주의 비극을 다루는 소설로부터 이처럼 애도 중지의 당위성을 확인해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애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¹⁰⁾라는 버틀러의 질문에 대해, 그 가능성만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구체적 실천의 방법을 사유할 수 있게 될 때 문학의 정치성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의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이를 목격한 한국사회의 집

8) 서용순, 『5·18의 주체성과 후사건적 주체의 미래에 대한 소고』,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2호, 2007. 서용순은 이 글에서 바디우의 개념을 참조하여 광주항쟁에 관한 ‘사건에의 충실성’이 사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에의 충실성’이란 “사건이 발생한 고유한 질서 속에서 사고되고 실천되는 실질적 단절”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알랭 바디우,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55쪽) 이때 중요한 것은 ‘단절’이다.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벽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단절을 실천하는 것은 주체의 윤리와 관련된다.

9)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15쪽.

10) 위의 책, 59쪽.

단적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수 있다.

2.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광주가 이처럼 현재적 사건으로서 끊임없이 재소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광주항쟁이 그 무자비함과 비인간성에 있어 동시대의 비극 중 유례가 없었다는 특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광주 항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항쟁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이라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전개와 관련하여 각각의 계기에서 어떻게 재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최장집의 논의를 참조해보자.¹¹⁾ 최장집에 따르면, 1987년의 6월 항쟁이 유혈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곧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이자 ‘실패한 항쟁’으로 인식된 광주항쟁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1987년의 상황에서 7년 전의 광주는 전두환 정권의 군사력 동원을 불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제약조건이 된다. 광주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저항과 희생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군사력 동원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붕괴하게 된다.

최장집에 따르면 광주항쟁은 ‘민중’이라는 집단을 정치무대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권위주의

1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 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제50권2호, 2007. 이하 두 단락의 내용은 이 글을 요약·정리한다.

산업화가 야기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노출된 집단으로서의 민중을 민주주의 투쟁의 주체로 부각시킨 것이 광주항쟁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에 의한 민주화”¹²⁾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중’이라는 집단을 ‘운동’의 주체로부터 ‘정치’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실패한다. 최장집에 따르면, ‘운동의 정치’가 ‘정당 정치’로 일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즉 “집단적 요구로 표출된 민중적 에너지를 어떻게 정당으로 조직할 것인가”¹³⁾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성장 제일주의가 한국사회의 강력한 헤게모니가 되면서, 더불어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당체제’의 문제로 인해 각 정당이 성숙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최장집은 한국의 지역당구조를 “민주화의 원천이었던 광주항쟁이 국지화된 결과물”¹⁴⁾로 분석한다. 요컨대, 광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주체로 등장한 ‘민중’은 신자유주의의 습격에 의해 정당한 “경제적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고, 광주는 민주주의 대의를 위한 투쟁 공간이 아닌 지역의 이익을 위한 투쟁 공간으로 축소화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된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은 이처럼 민주주의 이행의 결정적 동력이었던 광주항쟁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주목해본다.

광주에서의 희생이 왜 그 희생에 값하는 성취로 이어지지 못했는가를 분석해보는 그의 논의는, 거꾸로 광주항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

12)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29쪽.

13) 최장집, 앞의 글, 153쪽.

14) 위의 글, 157쪽.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2014년 현재 한국사회가 실패한 민주주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 이행의 결정적 동력이었던 광주항쟁의 의미를 무화시킬 위험마저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달성되지 않는 한 광주의 트라우마는 어떤 형태의 보상 행위를 통해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는 뼈아픈 자기반성의 자리에 광주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desencanto)'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반동기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광주는 어떤 형태로 현재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성숙한 민주주의는 "집단적으로 표출된 민중적 에너지를 어떻게 정당으로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취된다는 최장집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환기해보자.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정당 정치로 조직화되지 않을 경우, 민중은 정당을 매개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외부적 비판자"에 머물게 될 뿐¹⁵⁾이라는 그의 주장을 참조하자면, 광주항쟁을 현재화하는 일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광주가 증명한 민중적 에너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만 그칠 수는 없다. 최정운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 동기가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정치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로 귀착될 수 없으며 광주항쟁이 보여준 이명의 '절대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싸움의 공동체였음을 강조한다.¹⁶⁾ 적에 대한 분노와 죽음에의 공포를 믿을 수 없는 용기와 사랑으로 극복한 '절대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숭고한 공동체로 격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광주항쟁이 증명한 민중적 에너지의 정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과, 이를 현재적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이다. 끔직한

15) 위의 글, 116쪽.

16) 최정운, 앞의 책, 114-115쪽.

재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놀랄 만한 상호부조와 이타주의가 실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더불어, 그러한 이타주의가 평소에 어떤 질서에 의해 문혀버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¹⁷⁾

요컨대 광주를 재소환하는 작업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지속하는 일, 그리고 광주항쟁이 보여준 ‘절대 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을 넘어선 곳에 있어야 한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감정과, 애도의 완료를 거절한 슬픔의 감정이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어떤 가능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항쟁의 의미를 숙고하는 여러 사회학적·철학적 논의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듯도 하다.¹⁸⁾ 가령, 광주에 관한 ‘애도’를 중지하는 일의 ‘슬픔’은 정확히 어떤 감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슬픔’의 감정이 특정한 행위로 이행되는 메카니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광주가 증명한 ‘절대 공동체’로부터 현실의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꿈꾸어볼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해답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를 소환하는 최근의 소설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

17) 재난의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상호부조와 이타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레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짧은 상호부조와 이타주의의 천국이 나타나는지가 아니라, 왜 평소에는 그런 천국이 다른 세계의 질서에 문혀버리는가이다.”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펜타그램, 2012, 15쪽)

18) 최장집의 글도 다음과 같은 당위적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광주항쟁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때, 광주항쟁의 의미를 민주화이행과 공고화시기에 대한 역할로 한정하거나 고착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광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이 민중적 삶의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그것은 긴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 최장집, 앞의 글, 170쪽.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광주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장편들을 잇달아 출간하고 있는 현상은 유의미한 경향으로 지적될 만하다. 권여선의 『레카토』(창비, 2012)와 이해경의 『사슴 사냥꾼의 당겨지지 않은 방아쇠』(문학동네, 2013)는 1980년대를 20대로 보낸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1980년 광주이다. 광주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어린 동생의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30여년 만에 살인자를 찾아나서는 추적담의 형태를 띠는 김경욱의 『야구란 무엇인가』(문학동네, 2013)와, 광주항쟁의 초반 3일 이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킨 자들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그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창비, 2014)는 훨씬 더 전면적으로 광주를 소환한다. 광주항쟁 이후에 태어난 85년생 작가 박솔피의 단편 『그럼 무얼 부르지』(『그럼 무얼 부르지』, 자음과모음, 2014)도¹⁹⁾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역사적 비극이 서사로 재현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게 된다. 첫째, 선악의 구도를 확인하는 '고발'로서의 서사, 둘째, 망각을 거절하기 위한 '증언' 혹은 '기록'으로서의 서사, 셋째, 반복강박을 통한 트라우마의 '치유'로서의 서사 등이 그것이다.²⁰⁾ 그렇다면 최근 문단의 한

19) 광주항쟁이라는 과거의 비극과 원전 사고라는 미래의 가능한 비극을 주로 다루는 박솔피의 소설에 대해 김홍중은 "현장이 없는 세대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장 없음을 현장 삼아 사는 세대의 이야기"(『탈존주의(脫存主義)의 극장』, 『문학동네』, 2014 여름호, p.97)라고 정리한다. 박솔피의 소설은, 이미 역사화한 사건으로서 '광주'를 듣고 배워온 세대에게 '광주의 현재화'가 어떤 양상으로 가능할지를 타진해 보는 소설로 읽힐 수 있다. '광주'를 현재화하는 작업이 작가의 세대별로 어떤 차별적 양상을 드러내는데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로스버그가 트라우마의 리얼리즘이 수용해야 할 세 가지 요구를 정리한 것을 참조해볼 수 있다. 첫째, 기록의 요구, 둘째, 재현의 형식적 한계에 대한 성찰의 요구, 셋째, 홀로코스트 담론들의 위험을 감수한 대중적 유통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M. Rothberg, *Traumatic Realism: The Demands of Holocaust Representation*,

경향으로까지 논의해볼 수 있는 일련의 광주 관련 소설들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선은 문단 내부 혹은 외부의 정치적 요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미학적 실험에 몰두하는 새로운 세대의 작품에 열광해온 한국 문단은²¹⁾,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생존과 정치적 실존을 위협하는 여러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문학의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특히 2009년 용산사태 이후 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학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으며, 특히 평단은 때마침 활발하게 번역·소개된 랑시에르(J. Rancière)의 ‘감성의 정치’라는 개념을 차용하며 ‘미학’과 ‘정치’에 관한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²²⁾ 창작보다 재빠른 비평은 문학의 정치성에 관해 서둘러 여러 가지 논제들을 제출할 수 있었다.²³⁾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7(임경규, 『문화산업과 5/18의 재현』,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12권2호』, 2010 겨울, 93-94쪽에서 재인용).

- 21) ‘2000년대 문학이 보여준 미학적 새로움에 대해서는, 현실 경험의 중력과 무관한 “무중력의 문학”이라는 진단과, ‘사회(학)적 상상력’의 문학적 재현이라는 진단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전자의 대표적인 글로는 이광호, 『혼종적 글쓰기 혹은 무중력 공간의 탄생-2000년대 문학의 다른 이름들』,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후자의 대표적인 글로는 김영찬, 『2000년대 문학, 한국 소설의 상상지도』, 『비평극장의 유령들』, 창비, 2006을 참조.
- 22)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사이 평단이 랑시에르의 입론을 적극 수용하며 ‘문학의 정치성’에 관한 논의를 문학 혹은 비평에 관한 원론적인 질문으로 확장시키는 장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로는, 소영현, 『감감한 밤의 시간을 거니는 검은 소 떼를 구해야 한다면』,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63-67쪽을 참조.
- 23) ‘문학’과 ‘정치’에 관해 논하는 비평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일이다. 이 시기의 ‘문학’과 ‘정치’에 관한 평론들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무심코 그린 얼굴·시와 ‘정치’에 관한 단상』(『만집의 시간』, 문학동네, 2013)에서 정리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 평단의 담론들이 ‘진정성’, ‘윤리’, ‘정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전유해왔는지를 정치하게 정리하는 글로는 강동호, 『파괴된 꿈, 전망으로서의 비평』, 『문학과 사회』, 2013년 봄호를 참조.

그렇다면 '정치'와 관련된 평단의 반복되는 논의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할 때쯤, 광주와 관련된 소설들이 잇달아 출간되는 현상은 문학을 향한 이 같은 '정치'에의 요청이 만들어낸 결과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광주에 관한 소설을 써낸 작가들이 비슷한 세대로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65년생의 권여선은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인 소위 '386세대'라 할 수 있으며, 광주 출신의 71년생 김경욱과 70년생 한강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1991년의 분신정국을 통과한 운동권의 마지막 세대이다.²⁴⁾ 민주주의에의 열망과 실망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지경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이들은, 민주화 성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80년 5월의 광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광주로 돌아가는 일, 아니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은 이들 작가에게 시대의 요청이자 세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역사적 사건으로서 광주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광주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민주화 투쟁의 '완사건'으로서 광주를 재검점하려는 것이 이들 소설의 근본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스무살의 나이로 광주에서 실종되었다가 30여 년 만에 되돌아온 『레가토』의 오정연은 광주 이후의 시간들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판단을 강요하는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1980년 광주의 현장으로 돌아가 재

24) 직접적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은 아니지만 71년생 작가 천운영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도피생활을 재현해보는 장편 『생강』(창비, 2011)도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읽힐 수 있을 것이다.

25) 김경욱과 이해경의 소설을 '광주와 관련하여 읽는 서영채는 이들의 소설과 더불어 광주에 관한 서사가 비로소 "죄의식"이 아닌 "복수"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확인되는 것은 '복수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분노와 복수심의 종말에 대한 일종의 제문"으로 읽힌다고 분석한다. 서영채, 「광주의 복수를 꿈꾸는 일」, 『문학동네』 2014 봄호.

현하는 끔찍한 육체의 고통들은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감정을 환기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과 밀접하다.

3. 되돌아온 죽음과 애도 불가능성 - 권여선의 『레기토』

3.1. 초아자로서의 ‘광주’

광주를 다룬 소설들이 ‘증언’의 목적을 가질 때, 주로 공수부대의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시민군의 초인적인 희생이 강조되곤 한다.²⁶⁾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광주에서 확인된 끔찍한 폭력성과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용기가 재현될 때 여성의 육체와 목소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 당시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여성의 유방을 도려냈다’라는 식으로 여성의 몸이 처참히 난자되었다는 유언비어들이 광주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공수부대원들의 행동을 통해 이 유언비어들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도 증명되었다. 광주를 다루는 많은 소설들에서도 이러한 참상들이 실제적으로 혹은 유언비어의 장치를 통해 어김없이 등장한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가 대표적이거니와, 광주의 폭력성을 기록하는 많은 소설들은 여성의 육체를 무자비하게 훼손하면서 광주의 비인간성을 고

26) 정명중의 최근 연구는 『봄날』을 광주항쟁에 관한 기록물로 읽으면서, “진압기계”로서의 계엄군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적 폭력성과 시민군으로부터 나타나는 수동적 저항성의 “감정적 동역학”을 분석해본다. 계엄군의 공격적 폭력성을 “남자다움의 가상을 타자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어내는 부분이 흥미롭다.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

발해왔다.

그런가 하면 광주항쟁을 다룬 소설에서 언제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여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항쟁 당시 20일 경부터 마이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여성(전옥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이 이 인상적인 목소리를 잊지 않고 들려주는 것은 광주에서 증명된 초인적 저항의 힘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반응의 결과였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다. 즉 광주를 다루는 소설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훼손된 육체는 일차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수치를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분노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고,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여성의 낭랑한 목소리는 공포를 이기고 분노를 행동화하는 결정적 매개로 작동하는 것이다. 광주항쟁을 분석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어하는 결정적 지점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공수부대원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는지, 역시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그토록 용감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하지만 인간이기에 가능한 이 같은 불가해한 행위들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일이라면,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은 특히 '여성'이라는 기표를 매개로 하여 광주가 보여준 '인간을 넘어서는' 행위들의 감성 체계에 접근해 보곤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권여선의 『레가토』에서도 서사의 중심에 오정연이라는 여성 인물이 '부재하는 현존'으로 놓여 있다. 79학번 신입생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운동 서클에 몸담았던 오정연은 그해 가을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듬해 아이를 낳았으며 1980년 5월 우연히 광주 거리에

서게 되었고 거기서 젖과 피를 함께 흘리며 실종됐다. 에필로그에서 밝혀지듯, 당시 강연 차 광주를 방문했던 프랑스 교수의 헌신적 도움으로 오정연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기억을 잃은 채로 프랑스에서 30여년을 살게 된다. 이 소설은 오정연을 언니로 알고 자란 서른의 유하연이 사라진 언니(엄마)를 찾는 과정,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찾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추리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소설이 결국 찾아내는 것은 프랑스에서 아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는 오정연의 육체인 것만도, 운동권 서클의 존경받는 리더였으나 오정연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박인하라는 인물의 실체인 것만도 아니다. 이 소설이 오정연의 귀환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정확히 말해 ‘광주 이후’의 30여년이라는 시간의 허망함일지도 모른다.

오정연이 운동권에 몸담으며 피세일, 농활, 합숙 등을 통해 의식화되어간 1979년의 3월부터 10월까지의 시간들과, 30여년이 흐른 현재의 시간을 교차적으로 서술하는 『레가토』는 그때-그곳의 열정적이고 미숙했던 대학생들이 지금-여기의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냉소적 시선으로 그려낸다. 생사도 불확실한 채로 육체와 함께 이름마저 사라지고 잊힌 오정연과 달리,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선배와 동료들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 출판사 대표로, 대학의 교수로 모두 어느 정도의 상징적 지위를 누리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프롤로그는 이들이 재벌의 젊은 미망인 연여사가 주최하는 비밀 사교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모습을 그린다. 1980년 이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박인하, 신진태, 이재현, 조준환 등 이들 “반오픈 반언더”(52쪽) 서클의 멤버들은,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세대적 우월감을 누리며 과거를 낭만화할 권리가 부여받은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 쓰여진 후일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쓰여진 많은 후일

담 소설들이 과거의 미숙한 열정을 은연중 낭만화하면서, 이데올로기가 붕괴한 현실에 대한 환멸과 그러한 현실에 무력하게 적응해온 자신에 대한 환멸을 동시에 고백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면, 뒤늦게 씌어지고 있는 후일담 소설로서의 『레가토』는 그러한 환멸마저 사라진 탈내면 혹은 '탈진정성 시대'(김홍중)의 수치를 냉철히 증언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권여선이 현재의 수치, 정확히 말하면 수치를 모르는 수치를,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타락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지' 혹은 '외면'이라는 과거의 과오와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레가토』의 냉소가 가닿는 곳이 현재일 뿐 아니라 낭만화된 과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요컨대 『레가토』는 이미 벌어졌으나 잊힌 과거의 과오를 추적함으로써, 신화화된 과거에 균열을 일으키고 특정 세대와 특정 계층의 이념적 우월감을 꼬집는 소설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후일담의 기원에 '광주'가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에서 광주라는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의 비극의 시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윤리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레가토』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를 열망했으나 성취된 민주주의를 성숙한 단계로까지 올려놓지 못했으며 결국 퇴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의 실망과 분노를 앓고 있는 세대에게는 물론 대체로 이에 무심한 광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각자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묻을 수 있는 유일하게 근본적인 척도가 바로 '광주'라는 사건임을 『레가토』가 재확인하고 있다.

광주의 광장에서 살아남은 임철우는 "오월은 어떤 초자아 같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광주 이후의 모든 생존자들에게 유효하다. 『레가토』는 이른바 '산죽음(undead)'으로 돌아온 정연의 육체를 빌려 이

러한 초자아로서의 광주를 소환하다. 임신한 몸의 정연이 학교를 휴학하기 전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내가……만약 죽거나 병신 되면, 내가 혹시 잘못되면 니가 다 책임질 수 있니?”(234쪽) 초자아로서의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날 것의 질문에 답하는 일과 관련된다고 작가는 말하려는 듯하다.

3.2. 훼손된 여성성과 되돌아온 죽음

그렇다면 겨우 이십대 초반의 나이였던 그들이 행한 과오란 과연 무엇일까. 운동의 공동체이자 생활의 공동체였던 “카타콤”에서 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하를 회장으로 정연, 진태, 재현, 준환 등이 속했던 전통연구회라는 ‘반언더’ 서클은 이념연구회, 문학연구회와 함께 “카타콤”이라 불리는 서클룸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투사를 길러내는 이념화의 공간인 카타콤은 실상 폭력적 획일성이 강요된 명백한 남성 공동체라 할 수 있다.²⁷⁾ 염여사의 사교 파티가 그렇듯 이 공동체에도 “초대장”(8쪽)을 받은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고 그 “초대장”은 개인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인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서클에 가입했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정민경이 결국 카타콤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인하가 자신이 유명 여배우의 사생이라는 신분을 숨겨야 했던 것도 모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억압 때문이었다. 그러나 카타콤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희생된 것은 일체의 여성성이다. 숭고한 대의명

27) 『레가토』가 보여준 폭력적인 남성적 공동체와 이에 저항하는 여성적 “우애의 공동체”를 대조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은하의 『폭력의 기원과 우애(philia, 友愛)의 공동체-권여선의 『레가토』를 중심으로』(『인문과학 54』, 2014)가 자세하다.

분 앞에 개인의 특수성을 무화시키고 모두가 똑같은 혁명적 투사로 길러져야 하는 그곳은 실상 여성성에 대한 타자화를 은폐한 남성적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피세일 직후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자 후배의 뺨을 갈기며 “부끄럽지도 않냐, 이 연놈들아.”(64쪽)라고 호통 치는 폭력성이 용인되는 곳이었으며, 이념연구회, 전통연구회, 문학연구회를 각각 “이년” “저년” “무년”으로 부르는 철저한 남성적 호명이 무반성적으로 통용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철저히 희생당한 것은 물론 정연의 건강한 여성성이다.

인하는 분명 정연과 폭력적으로 몸을 섞으려 했지만 정연은 결국 “침묵과 수동성”(77쪽)으로 응대했다. 급체한 그의 손을 따주고 편안히 재워주고 지쳐 잠든 그에게 먹을 것을 사다주며 모성적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폭력을 통해서였지만 난생 처음 타인과 온전히 살을 맞댄 인하는 “어쩌면 자신이 여성을 혐오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143쪽)기까지 하며 정연의 품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충동적 성폭행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질, 나아가 자신의 취약한 육체를 타인에게 온전히 내어맡기는 완벽한 공동체를 체험할 기회를 더는 얻지 못한 채, 불시에 연행된다. 그리고 30여 년 간 그날의 기억을 “나는 성폭행범입니다. 강간범입니다.”라는 “자술의 욕망”(177쪽)과 함께 떠올린다. 정연이 비밀을 간직한 채 사라짐으로써 인하는 동료들 사이에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지만, 내내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다.

정연을 성폭행한 당사자는 인하이지만 사실 카타콤의 모든 동료들이 무지와 미숙함으로 정연을 육체를 함께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뱃속의 생명을 지키려는 육체의 건강한 본능에 충실했던 정연은 임신 사실을 눈치 채진 못한 동료들의 눈에 그저 투쟁의식이 해이해지고 탐욕스러워

진 이기적 개인으로 비칠 뿐이었던 것이다. 정연은 자신을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역겹다는 말을 남기고 그들 곁을 떠난다. 1979년의 카타콤으로부터 30여년 이후의 사고 파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남성공동체는 정연의 사라짐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투쟁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 진정한 공동체는 정연을 배척한 그 순간 사실 실패한 것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남성적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정연은 광주의 거리에 홀로 선다. “몸 안팎이 부풀고 터지고 비틀렸다 가지런히 줄을 맞춰 정돈되는 (...) 잔혹하고 경이로운” 출산의 체험을 겪으며 “그 과정을 묵묵히 함께 견뎌낸 오래된 전우와도 같”았던 자신의 육체를 앞세워 그 거리에 선다.

인하형은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오난이도, 재현이도, 진태도, 경애와 명식 이도, 주춤거리면서라도 끝끝내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그녀는 문득 울고 싶었다. 그녀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 누구나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들이 곧 싸워야 할 이유였다. 해산을 마치고 회복된 몸처럼 헝클어지고 혼란에 빠졌던 생각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울컥 스며나오는 섬뜩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324쪽)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는 정연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 학습된 의식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함께 살을 맞댄 동료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믿음과 삶에 대한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용기가 출산이라는 여성의 고유한 체험과 결부된다는 사실은 (이 체험을 신비화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자신의 몸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목적에 의해 비틀리고 찢긴 체험, 그리고 그 몸이 놀라운 복원력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체험을 통해 정연은 은연중, 타인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인간 육체의 취약함과 타인의 취약한 육체를 책임지는 인간 육

체의 건강함에 대해서까지 확신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용기와 믿음은 결국 정연의 육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훼손한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후 기억을 상실하고 다리가 절단된 채로 돌아온 정연의 망가진 육체는, 정연의 건강한 육체를 짓밟고 망각한 카타콤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별다를 바 없이 지금 이곳을 무탈하게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반성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죽은 줄로 알았던 정연이 돌아옴으로써,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정연의 딸이 나타남으로써, 이들은 그간 망각해온 자신들의 과오와 수치를 기억해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정연은 이른바 광주에 대한 '애도 중지'를 요청하는 '산죽음'인 것이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니가 다 책임질 수 있니?"라고 물었던 정연의 질문과 마침내 온전히 대면하며 정연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현재가 어떤 과오를 망각하고 은폐한 결과인지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운동권이 되고 안되는 것이 전적으로 우연에 달려 있었다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한때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신입생 헌터의 역할을 맡은 선배들은 한달 안에 낙점을 끝냈고, 낙점된 신입생들은 대개 한 학기 안에 마음의 결정을 끝냈다. 운동권에 몸담고 지낸 십수년의 기간에 비해 한달과 반년은 얼마나 짧은가. 그 짧은 동안 일어난 몇가지 단편적인 사건들의 우연성이 그후의 기나긴 청장년의 삶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했다. (중략) **그들이 그 시절 그녀와 나눈 것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저마다 무엇이 그토록 다급하고 분주해 그녀의 변화를 살피지 못했는가.** 왜 임신한 그녀가 마지막 닭날개 한 조각도 다 먹고 가지 못하도록 매섭게 다그쳤는가. 통닭집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떠날 때 그녀의 눈빛에 담긴 비애와 슬픔을 왜 일제히 외면했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메마르고 무지한 정신으로 왜 그렇게 근본적인 단절의 포즈를 고수했나. 왜 그렇게 동화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동경을 품었으며 왜 그렇게 자신들의 무효성을 앞당기기 위해 날뛰었던가. 그녀의 조각배가 죽음의 해협을 지날 때 그들의 배는 어디쯤 향해하고 있었나. 모든 시대의 청춘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어

디서건 제 운명을 읽어내고야 말겠다는 광적인 과잉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한 시절을 살아냈을 따름인데, 신진태, **그를 구성하는 기억의 허구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391쪽) (강조는 인용자의 것)

동료들의 곁을 떠나 고향에 돌아온 30여 년 전의 정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그녀의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신진태가 “미친놈처럼 뭐라 뭐라 중얼거리”(392쪽)는 낫두리는 몇 페이지에 걸쳐 쓰여진다. 이 부분은 가히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라 할 만하다. 장황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이 낫두리는 작가가 속한 세대의 자기반성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신진태의 입을 빌려 작가는 “운동권”에의 투신이 신념의 선택이 아닌 우연의 결과일 수 있었다는 진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우연이 신념으로 포장되어 그들의 청춘시절이 신비화된 사실에 대해, 나아가 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과오들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권 세대에 대한 이러한 성찰들이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통찰이 그 세대에 연루된 자에 의해 자기반성의 목소리로서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레가토』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권여선은 신진태의 입을 빌려 자기 세대의 과오와 허위를 스스로 꼬집고 있는 것이다.

『레가토』가 그려내는 ‘386세대’의 운동권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 시절을 통과한 그들의 현재 모습은 사실 꽤 전형적이다. 남성적 공동체에 의한 여성성의 훼손이라는 통찰도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 나아가 하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인하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상투적인 징벌처럼 여겨지며, 에필로그에서 하연의 친구인 석빈과 정연의 선배인 은수가 파리에서 우연히 정연을 발견하는 장면은 작위적으로 읽힐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 교수 리샤르가 총상을 입은 정연에게

가족을 찾아줄 시도를 하긴 했는지, 왜 그녀를 30여 년 간 이국땅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²⁸⁾ 이처럼 장편소설로서의 『레카토』는 서사의 전형성이나 작위성의 측면에서 미학적 결함이 없지 않은 장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결함이 광주를 단지 비극적 서사의 소재로서 소비하지 않기 위한 작가의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까. 정연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은 것이었다면, 『레카토』는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광주의 비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설에 그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권여선은 정연을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로 그렸으며, 결국 실종되었던 정연을 다시 돌아 오게 했다. 이러한 설정에는 광주를 모든 세대의 ‘초자아’로서 현재화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레카토』는 이 ‘되돌아온 죽음’과 더불어, 즉 ‘애도의 중지’와 더불어 오정연이 사라진 30여 년의 시간에 대해, 즉 1980년 광주 이후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반성적으로 사유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기본적으로는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운동권 세대의 과거와 현재를 윤리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그들의 세대적 우울감과 기만적인 나르시시즘에 균열을 일으키는 소설로 읽히지만, 그 반성의 중심에 광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레카토』는 광주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광주를 애도라는 형식 속에서 기념하

28) 이경재는 최근 광주를 다루는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을 “광주를 보편성의 차원에서 사유하려는 경향”과 “사건 자체의 증언 불가능성을 부각하려는 경향”으로 분석해본다. 그에 따르면 『레카토』가 프랑스인 교수를 등장시킨 것은 광주를 “보편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프랑스인 교수의 시선이 삽입됨으로써, 광주가 대한민국에서만 공감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닌 “인류적 차원의 비극”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경재, 『소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자음과모음』, 2014년 가을호) 이러한 분석은 『레카토』의 또 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처럼 광주의 비극이 인류 보편의 비극으로 확장되는 일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숙고될 필요가 있다.

고 추모하는 것조차 거절하기 위해 쓰여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레가토』에서는 광주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일이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식의 상징화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광주의 상실과 슬픔은 머리로의 이해가 아닌 몸의 감각을 통해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정연과 일시적으로나마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룬 적이 있었던 인하와 하연을 통해 드러난다. 정연을 잃은 상실감은 인하와 하연의 몸에 기입되어 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하며 “자신이 그들 말대로 정신으로 ‘불온’한 게 아니라 ‘불구’라는 생각”(p.173)이 들었던 때를 떠올릴 때마다, 인하는 정연에 대한 “깊은 자술의 욕망”(177쪽)을 동시에 느낀다. 누구의 몸과도 일체의 접촉을 거절하는, 심지어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하연의 피부병 역시 그녀의 몸에 기입된 상실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흡사 무균 처리된 듯한 하연의 무성(無性)적 육체는 정연의 건강한 여성적 육체와의 단절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인다. 인하와 하연의 몸에 기입된 이러한 상실의 자국은 자신과 한 몸을 이루었던 대상에 대한 죄의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권여선의 『레가토』는 몸으로 기억하는 ‘초자아로서의 광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로 읽히는 것이다.

4. 죽지 못한 치욕과 증언 불가능성 - 한강의 『소년이 온다』

4.1. 죽음의 불가해성과 ‘사건’으로서의 ‘광주’

『레가토』가 ‘살아 돌아온 죽음’을 통해 광주라는 초자아를 환기하는 소설이라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직접 그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는 소설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광주라는 사건과 조우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소설은 열흘 간의 광주항쟁 기간 중 초반 3일이 지난 이후의 시간들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공수부대의 비인간적 잔인성이나 이러한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희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공수부대의 사격이 개시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체들이 도청에 옮겨진 이후의 시간들에 초점을 둬으로써, '사건' 이후의 시간들에 주목한다. 특히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오기 바로 전날의 상황으로부터 새벽의 참사에 이르는 시간이 이 작품의 뼈대가 된다. 주지하듯 이때 시민군은 무기를 반납하고 계엄군과 타협하자는 온건파와 윤상원 등을 필두로 하여 결사 항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대결하고 있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항쟁파는 도청에 남았고, 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 200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소 160명에서 최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 26일 밤까지 도청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죽거나 살아남았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직전 도청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살아남아 연행된 사람들도 있다. 『소년이 온다』는 그때 그곳에서 죽은 열다섯 살 동호를 중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후 삶을 그린다.

어떤 이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도청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는지 등이 이 소설의 주요한 테마가 된다. 특히 『소년이 온다』에서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죽지 못한 자의 치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광주의 비극을 다루는 많은 소설들이 그때의 참상을 전시적으로 재현함으

29) 최정운, 앞의 책, 273쪽.

로써 여기의 우리 모두가 광주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면, 『소년이 온다』는 그때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왜 ‘알고도 행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치욕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보다 실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여선의 『레가토』와 함께 읽는다면 아마도 기억을 잃지 않은 정연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주요인물은 마지막 밤까지 한 조를 이루어 도청을 지킨 중학생 동호, 수피아 여고 3학년생 은숙, 그리고 양장점의 미싱사로 일하는 선주, 대학생 진수이다. 이들의 이야기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서술된다. 그리고 각각의 장은 초점화자를 달리하고 있다. 1장은 동호가 “너”라는 이인칭으로 서술되고, 2장은 동호의 죽은 친구인 정대의 목소리가 일인칭으로 서술된다. 3장에서는 도청의 마지막 밤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여고생 은숙의 이야기가, 4장에서는 도청에서 연행된 대학생 시민군의 이야기, 5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총기 소지자로 분류되어 도청에서 연행된 선주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죽은 동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히 그려지며,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실제 작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한다. 동호와 정대가 함께 살던 집에서 얼마 전 서울의 수유리로 이사 온 “나”는 열 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말들 속에는,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집에 살게 된, 하지만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어린 중학생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 후 작가된 “나”는 마침내 광주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 아니 동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옛집이 있던 곳으로 향한다. 이처럼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도록 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에필로그를 통해 작가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개입됨으로써, 이 소설은 논픽션에 가까운 소설임이 환

기된다.

도청을 찾아온 엄마와 형에게 곧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동호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소년이 온다』는 죽은 동호를 중심으로 그 죽음을 목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동호는 죽은 정대에게도, 살아남은 은숙, 선주, 진수, 그리고 동호의 어머니에게도 “너”라는 이인칭으로 호명된다. 동호의 죽음은 이들의 남은 삶에 온전히 기입되어, 자신들의 살아남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선 어린 나이의 동호가 왜 도청에 오게 되었으며 끝까지 도청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이다. 1장은 같은 집에 사는 친구 정대를 찾아 거리로 나온 동호의 이야기이다. 정대와 동호는 집에 오지 않는 정대의 누나 정미를 찾으러 함께 거리로 나왔고, 거기서 정대는 총에 맞는다. 동호는 총에 맞은 정대를 거리에 남겨둔 채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 그렇게 살아난 동호는 정미와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된다. “너, 시간 있으면 오늘만 우리 도와줄래? 손이 너무 모자라. 어려운 건 아니고……”(15쪽)라는 선주의 말에 그저 얼결에 도청에 남은 듯 보이지만, 사실 동호를 도청에 남게 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정대의 손을 놓쳤다는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1장에서 동호를 “너”로 지칭하는 화자는 동호의 입을 통해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45쪽)라고 말하게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선으로 동호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동호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를 감행하게 했다는 것은 동호의 죽음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타자적 시선의 이해일 뿐이다.

동호가 도청을 빠져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동호는 이미 죽고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죽은 정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기보다는 그저 “왜 누군 가고 누군 남아요”(28쪽)라는 단순한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동호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간 많은 어린 죽음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끝까지 명료한 대답을 내릴 수 없다. 자신들이 그랬듯, 도청에서 살아남아 “평생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에 몸을 실었던”(113쪽) 것일 수도,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을 (...)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116쪽)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동호의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남은 카스텔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116쪽)

사실 이러한 죽음의 불가해성이 『소년이 온다』를 문제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지점 중 하나이다. 광주라는 비극이 왜 일어났고, 그 안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동시에 어떤 초인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해명들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담론들이 제출된다고 해도 저 어린 죽음이 이해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하다. 『소년이 온다』가 완결된 서사를 지향하기보다는 초점화자를 달리 하며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목소리가 다소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은 광주의 비극과 그 중심에 놓인 동호의 죽음이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죽음의 불가해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년이 온다』는 의미화 혹은 역사화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광주’를 인식하고자

한다. 어른들이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 던”(133쪽) 동호를 포함한 다섯 명의 아이들은 나란히 총에 맞아 직선으 로 쓰러져 죽었다. 이와 같은 죽음을 목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에 는 결코 지울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균열이 남게 된다. 『소년이 온 다』는 그 균열을 ‘증언 불가능’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현한다.

4.2. 증언불가능성과 재현가능성

도청에서 살아남은 은숙, 진수, 선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에서 반 복되는 것은 살아남은 죄책감이기보다 오히려 ‘죽지 못한 육체’에 대한 치욕이다. 한강은 이러한 치욕이 말로 전달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강 조한다. 첫 번째 인용은 은숙의 이야기, 두 번째 인용은 김진수와 함께 고문을 받은 대학생의 이야기이다.

묵묵히 쌀알을 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했다. 지난 오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85쪽)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주겠다. (...) 묶은 진물과 진득한 고름, 냄새나는 침, 피, 눈물과 콧물, 속옷에 지린 오줌과 똥. 그것들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들 자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썩어가는 살덩어리가 나였습니다. (119~120쪽)

은숙은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 진수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충성을 들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한 은숙은 출판사에 취직한다. 은숙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3장은 그녀가 취조관으로부터 일곱 대의 뺨을 맞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수배중인 번역자의 책을 내주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취조관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대의 뺨을 그녀는 이제부터 잊을 것이다”(66쪽)라고 말하는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온다. 도청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던 동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던 진수의 마지막 얼굴은 내내 은숙에게 살아 있음의 수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부끄러움이 의식적인 죄책감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위의 인용에서처럼 일상적인 “허기”와 같은 일종의 육체적 무력감으로부터 확인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진수와 함께 연행되었던 대학생이 서로가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매끼 그와 하나의 식판을 나누며 느꼈던 육체적 무력감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저 씹어가는 살덩어리”에 불과했던 자신을 바라보며 이들이 느꼈던 수치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끔찍한 육체적 고통 앞에서 이들은 살아남았음을 안도하거나 윤리적 수치를 느낄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 “지금 제발, 지금 내 몸이 지워지기를”(121쪽)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느낀 수치는 레비나스를 인용하며 아감벤이 말한바 “부끄러움 그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로부터 단절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무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³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곧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말한다.”³¹⁾

30)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157쪽.

31) 위의 책, 158쪽.

즉 이러한 수치는 스스로의 동물적 한계와 대면하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소년이 온다』는 이처럼 살아남은 자의 수치를 도덕의 차원이 아닌 육체적 감각의 차원에서 다뤄본다. 『레가토』가 그리는 죄의식의 감각보다 훨씬 더 즉물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비인간성과 대면한 인간은 이 수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³³⁾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에 대해 증언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그 형용 불가능의 고통들을 의미화하며 수치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강의 소설에서는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치유되지 못한다. 자살한 진수가 그랬듯 이들이 저 끔찍한 수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죽음뿐일지도 모른다. 광주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요청하는 연구자 윤에게 이들은 “무슨 권리로 그걸 나에게 요구합니까”(132쪽)라며 분노한다.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선주 역시 “증언. 의미. 기억. 미래를 위해”(166쪽)라는 단어들만 띄엄띄엄 보이는 윤의 메일을 보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166쪽)라고 자문할 뿐이다.

삼십 센터 나무 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깎아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이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
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
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숴드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32)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67쪽.

33) 같은 곳.

살아남기 위하여.

(166~167쪽) (강조는 인용자의 짓)

이들은 증언할 수 없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가능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증언할 수 있다. 물론 이 증언은 혼자서 하는 것이다. 혼잣말처럼 내뱉어진 이 불가능한 증언들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재현’이다. 그런 점에서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장이 에필로그라는 형태로 작가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주의 깊게 읽힐 필요가 있다. 분명 작가의 말에 쓰여야 마땅한 내용들이 작품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소설의 모든 재현에 대해 작가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필로그에서 작가인 “나”는 광주를 증언하는 일의 책임감과 부담을 동시에 고백한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했다”(200쪽)라며 일종의 사명감을 확인해보지만,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야 합니다”(211쪽)라는 동호의 형 말에 심장의 통증을 느낄 정도의 압박을 느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지하 밀실에 가둬둔 5·18 연행자들 수십명이 비밀리에 곧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끔찍한 꿈을 꾸기도 한다. 이 프롤로그는 그 자체로, 작가가 죽은 자들의 슬픔과 살아남은 자들의 치욕을 내 몸의 일처럼 느끼며 그들 대신 ‘증언’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을 적극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어쩌면 증언을 거절당한 작중인물 윤과 소설가인 ‘나’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증언 불가능’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소설가인 ‘나’는 그 불가능을 재현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요컨대 ‘살아남은 죄책감’보다 오히려 ‘죽지 못한 치욕’을 그리는 데 집중하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치욕에 관한 개개인의 ‘증언 불가능’을 강조하며 오히려 광주의 참상을 더 정확히 재현하는 소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껏 광주를 다룬 많은 서사들은 이 엄청난 비극에 관한 ‘재현 불가능’을 반-미학적 태도로 실현하는 일에 몰두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바 『소년이 온다』의 파편적 구성들도 이러한 태도를 공유한다고 이해된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분석하는 한 연구자는 이러한 “반-미학적 태도와 일체의 종합을 거부하는 일관된 고집”은 “5·18의 역사성에 대한 종합되고 균형 잡힌 이해, 즉 5·18의 파토스와 5·18의 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중지시키고 있다”³⁴⁾고 비판적으로 논평하기도 한다. 사적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전체가 관여된 집단적인 병리로서 광주항쟁에 접근해야 하며 “병리적인 개체의 왜곡된 시야 속으로 사태를 축소”하는 위험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비극을 다루는 소설은 사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소설은 오히려 여타의 담론들이 의미화하고 남은 지점들에, 즉 의미화는 벗어 나는 지점들에 몰두한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광주의 비극에 대한 ‘증언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설이 아니라, 그 ‘증언 불가능성’을 ‘재현 가능성’으로 극복하는 소설로 읽힐 수 있다. ‘증언 불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태를 보다 정확히 재현하는 일이 문학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라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에서 일어난 비인간적 참상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록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이 연달아 출간되고 있는 현상

34)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010, 460쪽.

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분석될 여지가 크다. 이 글은 광주항쟁을 서사의 중요한 동력으로 호출하는 권여선의 『레가토』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분석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으로서의 ‘광주항쟁’을 현재화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권여선의 『레가토』에서 ‘광주’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 출신의 운동권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권여선 특유의 직설 어법으로 운동권 세대의 허위와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소설이 ‘초자아로서의 광주’를 소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광주의 현장으로부터 30여년 만에 살아 돌아온 정연의 훼손된 육체는 광주를 역사적 사건으로 화석화시키려는 현재적 기억의 방식이 지닌 폭력성을 문제 삼는 역할을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비극을 재현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소설이다. 흔히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은 죽은 자의 훼손된 육체를 묘사하거나 살아남은 자의 고통 받는 영혼을 그림으로써 광주의 비극을 재현하곤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이와는 반대로 죽은 자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살아남은 자의 육체적 수치를 ‘증언 불가능’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광주의 참상을 보다 정확히 재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년이 온다』는 광주를 다루는 기존의 소설에서 온전한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어린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증언을 들려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 광주를 익명의 집단적 비극으로 의미화·역사화하는 일에 저항하며 고통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것이 『소년이 온다』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서사들이 실패한 지점들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의 의미와 가능성을 재고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여선, 『레가토』, 창비, 2012.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2. 논문과 단행본

- 강동호, 『파괴된 꿈, 전망으로서의 비평』, 『문학과사회』, 2013년 봄호, 334~365쪽.
김경옥, 『야구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013.
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2호, 2006, 139~156쪽.
김영찬, 『2000년대 문학, 한국 소설의 상상지도』, 『비평극장의 유명들』, 창비, 2006, 79~95쪽.
김은하, 『폭력의 기원과 우애의 공동체-권여선의 『레가토』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54, 2014, 287~317쪽.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1~78쪽.
_____, 『탈존주의의 극장』, 『문학동네』, 2014년 여름호.
박솔피, 『그럼 무얼 부르지』, 자음과모음, 2014.
서영채, 『광주의 복수를 꿈꾸는 일』, 『문학동네』, 2014년 봄호, 228~254쪽.
서용순, 『5·18의 주체성과 후사건적 주체의 미래에 대한 소고』,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2호, 2007, 97~117쪽.
소영현, 『깜깜한 밤의 시간을 거니는 검은 소 떼를 구해야 한다면』,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63~79쪽.
손호철, 『5·18 광주 민중항쟁의 재조명』, 『진보평론』, 1995, 79~102쪽.
이경재, 『소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자음과모음』, 2014년 가을호, 328~343쪽.
이광호,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이해경, 『시슴 사냥꾼의 당겨지지 않은 방아쇠』, 문학동네, 2013.
임경규, 『문화산업과 5/18의 재현』,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제12권2호, 2010년 겨울, 73~98쪽.
임철우, 『봄날1~5』, 문학과지성사, 1997~8.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2호, 2013, 131~167쪽.
조연정, 『무심코 그린 얼굴』시와 '정치'에 관한 단상』, 『만집의 시간』, 문학동네, 2013, 173~187쪽.

-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010, 440~467쪽.
-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 _____,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 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제50권2호, 2007, 144~184쪽.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2012.
- 최정운·임철우,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 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사회』, 2014년 여름호, 340~386쪽.
- 황석영, 『오래된 정원1~2』, 창비, 2000.
- Agamben, G.,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 Badiou, A., 『윤리학』,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 Butler, J.,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 Solnit R.,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혜영 옮김, 펜타그램, 2012.

Abstract

'Gwangju' unceasingly summoned

- Based on Yeosun Kwon's *Legato* (2012) and Gang Han's *Here comes a boy* (2014)

Cho, Yeon-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inuous publication of novels regarding 'Gwangju', which has been a phenomenon for the past few years, can b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crisis in Korea. This thesis analyzes *Legato* (2012) by Kwon Yeosun and *Here comes a boy* (2014) by Han Gang which call for Gwangju Uprising as an important force in narrative, and aims to explore the way that enables bringing 'Gwangju Uprising', which has not been finished yet, to the present. 'Gwangju' in Kwon Yeosun's *Legato* functions as an opportunity for the generation of so-called elite people who already have stable social status but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back then to reflect their present and past. The fact that this novel summons 'Gwangju as a superego' is quite meaningful in that it harshly criticizes the fault and hypocrisy of the generation with movement group background through the author's unique indicative. The damaged body of Jeongyeon who came back alive from the scene of Gwangju after nearly 30 years points out the violence of the present memory which tries to fossilize Gwangju as a historic event.

Han Gang's *Here comes a boy* is a novel which is concerned with the ultimate way of reproducing the tragedy. Usually, novels regarding Gwangju reproduce the tragedy of Gwangju through describing the damaged body of the dead or the painful souls of those who survived. On the contrary, Han Gang's *Here comes a boy* tries to reveal the horrors of Gwangju more accurately through reproducing the tragedy by depicting the voices of the painful souls of the dead or describing the physical humiliation of survivors with the device of 'impossible to testify'. Furthermore, *Here comes a bo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s to deliver the testimonies of young boys and girls, and female workers who were not able to tell their stories fully in other existing novels. The accomplishment of *Here comes a boy* would be noticing the individuality of pains through resisting the movement of understanding and making

138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the history of Gwangju as a mere anonymous collective tragedy.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bringing Gwangju to the present could be reconsidered through these novels which fill the gap where the existing narratives failed to cover.

(Key Words: Gwangju, condolences, democracy, the generation of movement group, undead)

■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